

# 유아 학원교습비 초과징수 관리 강화... 진학상담 50% 확대

###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책 유아대상 학원 몰린 지역 집중점검 저소득층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유아대상 학원 밀집 지역 현장 점검을 늘리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사교육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서울의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 참여율은 82.6%로 전국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최고 수준이었다. 소득별 사교육비도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은 72만 8000원, 300만원 미만은 19만2000원으로 3.8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장 관리를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맞춰 관련 규칙과 벌점 체계를 정비하고, 유아 대상 학원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에 나설 계획이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과도한 입시 경쟁 조장 광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최소 2~3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학원 폐원 1개월 전 사전 통보와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공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자율수강권과 학습지원을 늘리고,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EBS 수준별 강좌 제공,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주요 사업 실적을 사교육비 단가로 환산하면 공교육 예산액이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고, 관련 사업을 더 넓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수요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 입시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 수준이며, 90분 90만원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늘리고,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확대한다. 센(SEN)진학 나침판과 교육청 SNS를 통한 정보 제공도 월 2회로 정례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학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 및 사회와 협력해 구조적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캠퍼스타운, 5년내 딥테크기업 1728곳 육성

### 서울시, AI중심 창업 생태계 고도화 대학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강화

서울시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AI 중심 창업 생태계로 고도화한다. 올해 창업기업 730개를 선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1728개 육성을 목표로 대학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에서는 한양대, 경희대, 서울대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며 캠퍼스타운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됐다.

#### ◆양적 발굴에서 '유망기업 집중 육성'으로 전환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의 '양적 중심 예비·초기 창업기업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유망 기업 집중 육성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대학과 연계한 AI 창업기업 육성, RISE 사업과의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캠퍼스타운은 2017년부터 서울시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 창업기업을



서울대와 아이비스의 검수 자동화 솔루션.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해 AI,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730개 창업기업을 선발했다.

#### ◆대학별 특성화 전략... AI·RISE·글로벌 연계 강화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더 분명히 하고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

과제를 표준화·고도화할 방침이다.

우선 대학별 핵심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 고려대는 학점 연계 프로그램인 '캠퍼스타운형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학사 단계부터 창업 역량을 키우고, 국민대는 TIPS 운영사인 국민대기술지주와 연계한 '투자와 TIPS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아키유니콘 발굴에 나선다.

AI 창업 육성 분야에서는 숭실대가 'AI 기반 창업기업 및 인력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급 전주기 교육을 추진하고, 동국대는 'AI+메타버스 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AI 기반 가상전시관 제작과 아카이빙 플랫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RISE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한양대는 '스타트업 오픈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 리버스피칭, 1대1 비공개 상담, 네트워킹을 연계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 평택시, '2040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 100만 특례시 도약 기반 마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40년까지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100만 특례시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으로 평택시는 2040년 계획 인구 105만4천 명을 확정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7번째로 100만 이상 계획인구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급속한 도시 성장에 대응하고 100만 규모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반도체, 수소, 항만·물류 등 핵심 산업 기반을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체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방향을 함께 반영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교통축과 도시 기능 연계성을 높여 산업 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간 구조도 포함됐다.

또한 동부와 서부,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도 핵심 과제로 반영됐다. 동부 생활권은 첨단산업, 연구개발, 국제교류 기능을 중심으로, 서부 생활권은 평택항 연계 물류, 수소산업,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하며 각 권역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연계되는 발전체계를 구축해 평택 전역의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사회 기반시설(SOC) 확충도 포함됐다.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생활권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주요 거점 연계 체계를 계획에 반영해 시민 이동 편의와 도시 접근성을 높였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파주 '캠프하우스', 도시숲으로 탈바꿈

### 내년 착공 후 2028년 준공 목표

파주시가 캠프하우스 부지를 시민을 위한 녹색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캠프하우스 도시숲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캠프하우스 도시숲 조성사업'은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총 3단계 사업 중 2단계에

해당한다. 단계별 사업을 통해 과거 군사시설이었던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원·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다.

2단계 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약 50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약 3만 1000㎡ 규모로 조성되며, 관리등과 주

차장을 비롯해 자연과 어우러진 야영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는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새로운 도시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해돋이 / 06:42 | 해질 / 18:40

오늘의 날씨

3월 16일 (월)  
음력 : 1월 28일

수도권 날씨  
1 ~ 1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3/13

동두천 -2/14

파주 -3/13

서울 1/13

양평 -1/14

수원 1/12

용인 1/12

평택 -2/14

백령도 3/9

가평 -3/14

인천 1/1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처칠 대신 야생동물”...영국, 차기 지폐 도안 변경 추진  
▲이란, 푸자이라 공격·UAE 위협...美 참전요구에 호르무즈 확전 조짐

▲곰속 속 가족 지키러 귀국한 이란 코치...중국서 '응원 물결'  
▲“7년 만의 성조기”...베네수엘라 미 대사관 재개

▲레오 14세 교황, 사도궁 교황 관저 입주...10개월 보수 공사 마무리  
▲서방으로 번진 중동 전쟁 불길...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학교 “의도된 폭발”